

마리보기	3 기획 - 우리 대학, 유학생 수용력의 이면	4 기획 - 찾았다! 내 힐링 포인트!!	5 기획 - '소식좌'라는 새로운 콘텐츠의 등장	8 문화 - '제한했던 자유'를 되찾다
-------------	-------------------------------------	----------------------------------	--------------------------------------	---------------------------------

여름 계절학기 전면 대면수업 실시

우리 대학은 1학기 개강 후부터 고등교육분야 일상회복 추진계획에 맞춰 강의실 기반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인터넷 강좌를 제외한 몇몇 과목은 수강생 인원수가 많거나 교수의 요청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됐다. 비대면 수업 간 '좌석 한 칸 띄우기'라는 기준 아래 강의실에 많은 인원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여름방학부터 인터넷 강

좌를 제외한 모든 개설강좌는 전면 대면수업으로 이뤄진다. 수업은 우리 대학 수업 조치 지침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며 수업방식은 정부 방역지침 및 교육부 대학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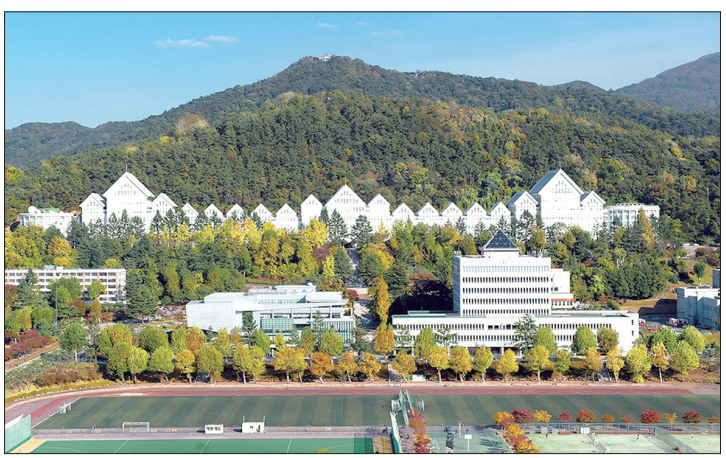
만약 담당 교원의 확진 및 건강상의 이유로 대면수업을 못하게 되면 비대면 수업이나 보강으로 이뤄지며, 학우들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출석인증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학사운영팀은 "2학기 수업 운영 계획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오는 7월 중순쯤에 결정될 예정이다"며 교육부 지침이 나오는 데로 학우들에게 공지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름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오후 4시까지다.

김성우 기자
seongwoo55921@chosun.kr



우리 대학 후문서 '와우 플리마켓' 개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장미원 개방과 함께 후문 장미의 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와우 플리마켓' 행사가 지난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우리 대학후문과 조대여중 구간에 진행됐다.

주 이벤트인 플리마켓은 우리 대학 총학생회와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써 학생 셀러, 상인 셀러, 지역민 셀러 등 20팀에서 직접 만든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수제곱 예품, 먹거리뿐만 아니라 공연과 즉석 이벤트, 고객 참여 이벤트 등 즐길 거리 또한 많아 장미의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와우 플리마켓' 행사는 당근마

켓 행사 또한 진행했다. 당근마켓은 지역민들이 집에서 안쓰는 물건이나 우리 대학 학우들의 중고책을 나눈다는 취지의 중고장터다.

조대장미거리사업단 기획팀은 "오는 9월, 10월에도 플리마켓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며 "학생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한다"라고 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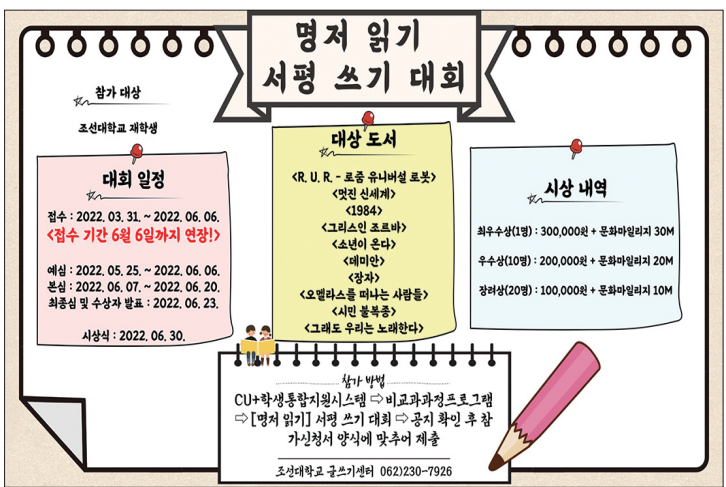
한편, 플리마켓은 5월과 같이 6월, 9월, 10월 또한 매월 2회씩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이달 행사는 우리 대학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학생들을 제외한 지역주민과 상인분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회 개최했고, 오는 10월에 추가하



여 3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보경 기자
ppboo@naver.com

우리 대학 글쓰기센터, [명저 읽기] 서평 쓰기 대회 진행



우리 대학 글쓰기센터에서 재학생들의 글쓰기 능력과 독서 역량 강화를 위해 [명저 읽기] 서평 쓰기 대회를 개최한다.

[명저 읽기] 서평 쓰기 대회는 지난 2020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매년 진행되고 있다. 대회는 우리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당 도서를 읽은 후 서평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대회 시작 이후 일정이 변경돼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예심이 치러진다.

대상 도서는 <R.U.R. - 로쭈 유니버설 로봇>, <멋진 신세계>, <1984>, <그리스인 조르바>, <소년이 온다>, <데미안>, <장자>,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시민 불복종>, <그래도 우리는 노래한다>이다.

대상 도서 중 한 권을 골라 읽은 후 CU+학생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비교과과정프로그램에서 해당 대회의 공지를 확인 후 참가신청서 양식에 맞춰 제출하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20일까지 예심을 마친 후에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본심을 거치고 다음달 6일 최종심을 통해 수상작을 발표한다. 이후 다음달 13일 시상식을 진행 예정이다.

수상자는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0명, 장려상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문화마일리지 5M가 지급된다.

정상아 기자
jivory9956@naver.com

여름방학 생활관 이용 안내

여름방학 기간에도 학우들은 우리 대학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 대학은 1학기 생활관을 이용했던 학우들을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9일간 접수를 받았으며 신규이용자는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접수했다. 이 둘은 납부기간이 상이한데 연속이용자는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신규이용자는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다. 모두 우리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 후 광주은행 또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백학학사와 글로벌하우스는 기숙사 별, 이용 구간 별로 이용금액이 상이하니 생활관 신청 전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 더불어, 생활관비를 납부한 이용자 중 이용기간 시작 1일 전까지의 입사를 포기한 자는

입사포기각서 작성 후 전액 환불된다.

한편, 올해 여름방학 생활관 미이용자의 퇴사 일자는 이달 25일 오후 4시 까지이며, 2학기 생활관 미입사자의 퇴사일자는 오는 8월 14일 오후 4시 까지다. 모든 이용자는 생활관 사생수칙이 적용되며, 여름방학만 거주하는 일반 이용자는 별점 7점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퇴사 조치되고 누락된 별점은 다음 학년도 입사선발에 반영된다.

박영진 기자 youngjinqueen123@gmail.com

우리 대학 홈페이지

광주전남혈액원, 광주전남지역 헌혈 활동 고민

“헌혈의집 이전, 복합적인 이유에 있다”

6월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광주전남혈액원을 방문했다.

대한적십자사 소속의 광주전남혈액원은 143개에 해당하는 광주전남지역 병원과 의료기관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다. 헌혈 지원팀 정의진 팀원은 최근 광주전남지역의 혈액 수급량에 대해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혈액 보유량은 7.5일분(5월 6일 인터뷰일 기준)으로써 적정 보유량 기준인 5.0일분을 상회하는 수치다”며 거리두기에 따른 헌혈 제한의 완화가 헌혈률 회복에 도움이 됐음을 밝혔다.

광주전남혈액원이 헌혈 활동에서 노력하는 점을 묻는 질문에는 “혈액원의 작년 헌혈 실적을 보면 10·20대 헌혈자가 전체의 62.5%로 청년층 헌혈자 비율

이 높다”며 “따라서 청년층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중장년층의 저조한 헌혈 참여율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작년에 진행한 헌혈 프로모션의 경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은 헌혈 마라톤과 헌혈 리더 프로모션, 중장년층에게는 백지영 콘서트 초청 프로모션을 제공해 타겟팅을 달리하는 노력을 했다”고 답했다.

한편, 우리 대학 헌혈의집은 22년간의 운영을 끝으로 7월 중 첨단으로 이전하게 된다. 정의진 팀원은 시설 이전의 이유에 대해 “헌혈의집 운영은 꾸준한 헌혈률을 고려해야 하는데 지난 2017년, 우리 대학 센터 헌혈 실적이 9,724분에서 작년에 5,606분으로 집계됐다”며 5년간 42.3%라는 절반에 가까운 헌혈 수치가 감소

한 것을 주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또한, “충장로 센터가 우리 대학까지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첨단 지역의 인구수가 증가해 헌혈의집 개소 요청이 많았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이전하게 됐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전 후 우리 대학에서의 헌혈 활동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많은 협의가 오가고 있다”며 “헌혈 버스 배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화두가 돼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남겼다.

끝으로 정 팀원은 “이제 코로나19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추세인 것 같다”며 “헌혈에 참여하기 어려운 일인 건 알지만 그렇기에 다양한 혜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팀원은 “대학생 기준에서



▲혈액 수송 중인 광주전남혈액원 전경

는 연중 약정 없이 제공하는 기념품과 헌혈의집 센터별 할인 혜택, 헌혈의집 주변 제휴 업체의 15~20% 할인 혜택과 광주시 주차료 할인 혜택이 있다”며 헌혈 활동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헌혈 정보는 혈액 관리본부 홈페이지와 ‘레드 커넥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액원에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다. 줄어드는 헌혈률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헌혈은 오직 사람과 사람 간의 이타성으로 연결되는 활동이라고 한다. 22년간 자리를 지킨 우리 대학 헌혈의집에 의미 있는 걸음을 해보는 건 어떨까.

김성하 기자

seongha1bb@naver.com

8년을 함께한 장항남박물관, 현재 이전 준비 중

정보통신의 역사를 담고 있는 우리 대학의 장항남정보통신박물관이 무기한 휴관 끝에 이전할 계획이다. 장항남박물관은 장항남 박사가 평생 정보통신의 역사 자료를 연구하며 모은 4,500점의 정보통신기기를 우리 대학에 기부하며 만들어졌다. 당시 공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김병철 초대 박물관장이 장항남 박사에게 제안해 함께 기획하고 설립했으며,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2014년 9월 30일에 개관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장항남박물관의 무기한 휴관을 결정했다. 지난해 6월, 계약 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7월에 기획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박물관의 휴관에 대해 검토했다.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그해 8월에 휴관을 결정했고, 박물관장 임명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기획조정실 전략기획팀 이동현 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박물관 이용자 수가 줄어들고, 계약 직원의 퇴



▲장항남정보통신박물관 내부에서 라디오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품들

사로 관리 감독의 문제가 생긴 것이 휴관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본 전시품을 타 기관으로 이전해, 많은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장항남박물관의 공간은 추후에 다른 용도로 이용할 예정이니 학우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장항남정보통신박물관은 지난

4월 전라남도 교육청에 박물관 전시품 활용 방안을 위한 공문을 보냈고, 교육감 선거 이후 관련 업무가 추진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우리 대학 1 학우는 “장항남박물관의 관람객이 줄어드는 것은 홍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가치 있는 전시품들이 많은데 우리 대학 학우들이 이를 잘 모르는 게 아쉽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항남박물관 전시를 보러 갔을 때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아 많은 학우들이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아쉽다”며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다.

정민주 기자

miinjuu01@naver.com

3년만의 엠티 잇따른 엠티 비용 논란

최근 엠티와 관련해 우리 대학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이하 에타)에서 엠티 비용납부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글 내용은 ‘엠티 비용 왜 현금 납부?’, ‘이후 계좌이체 변경 이유는’, ‘사용 내역 공개는?’이었다.

글에 언급된 경제학과와 학생회장은 “코로나19 이전에 진행되던 방법을 이어가고자 현금 납부를 선택했다. 영수증 공개를 할 예정이기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누락되는 인원이 생길까 봐 현금 납부를 채택했으나 문의가 자주 들어와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추가로 경제학과 학생회장은 학생회비 납부·사용 내역 공개를 계획했지만, 학교로 와서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인원이 적어 학기별 공개로 변경한 점을 재차 언급했다. 물론 당장 사용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영수증 및 이체내역을 정리해 뒀음을 밝혔다.

또한, 댓글에 언급이 있었던 법사회대는 “엠티 인원이 많아 계좌이체 한도를 넘었다. 또한, 네임데이 행사 때 계좌이체를 받아보니 결산서를 한눈에 보기 힘들었고, 제때 납부하지 않는 인원이 생겼다”며 현금 납부를 택한 이유로 두 가지를 밝혔다.



▲ 우리 대학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엠티 비용 납부관련 글과 댓글의 일부

이어 “회장단과 집행부 회의에서 엠티 조장을 통한 계좌이체가 편리할 것 같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이 결정을 조가 짜인 후 전하려고 했으나, 과마다 조 편성 시기가 달라 팀이 생겨 학우들에게 혼선이 생긴 것 같다”며 계좌이체 변경에 대해 덧붙였다.

끝으로 법사회대 회장은 혼선을 준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더욱 청렴하고 학우들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회가 되겠다고 했다. 또한, 경제학과 회장은 앞으로 건의사항이 생기면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백어진 수습기자

uhjin0304@naver.com

조대신문

www.chosun.ac.kr/chnews 1954년 9월 15일 창간

민족대학 건설에 이바지 / 대학언론 창달에 기여 /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발행인_ 총장 민영돈 / 편집인 겸 주간_ 김법현

편집국장_ 김성우 / 인쇄인_ 박만수

주 소_ 61453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편집실_ 062-230-6162 / FAX_ 062-234-3014 / 행정실_ 062-230-6166

우리 대학 국제화 위해 대학의 성숙한 유학생 수용 자세 필요

유학생들, 학교 정착에 어려움 느껴

우리 대학은 현재 491명의 유학생을 수용하고 있다. 1,000명 수준을 웃돌던 우리 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은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비자가 중단된 이후 절반에 가까운 수가 줄었다. 국제교류의 침체기였던 지난 시간 동안 유학생들의 입장을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진 않았는지 생각하며 유학생 학우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유학생 선발 기준, 높진 않아

우리 대학 중국인 유학생 ㄱ 학우는 고등 학교가 우리 대학과 협업 관계에 있어서 한국 선생님의 소개로 입학하게 됐다. 그는 우리 대학 수업을 수강하는데 어려움이 없느냐는 질문에 “TOPIK 한국어능력시험을 보고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일상생활 용어는 70% 정도 알아들을 수 있다. 말하기는 40% 정도 실력인 것 같다”며 수업이 조금 빠르긴 하지만 주변에서 조금만 도움을 주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우리 대학 중국인 유학생 ㄴ 학우는 “토픽 점수가 6급(최상위 급수)이다”며 “수업을 듣는 것은 다른 외국인 학우들보다 수월하지만 그래도 언어가 달라 시험이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우리 대학 유학생 수용 기준인 토픽 성적은 3급(최고 성적 6급)이다. 그러나 한국어 실력에 차이가 있는 두 학우 모두 수업을 수월하게 듣기 위해서는 5급 정도의 실력이 돼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덧붙였다. 그리고 유학생 학우들이 입학을 위해 응시하는 한국어 토픽 기준은 듣기, 쓰기, 읽기 부분으로, 말하기 평가가 없어서 회화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우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용력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위해 해당 인터뷰 결과를 가지고 국제협력팀에 문의했다. 우리 대학 국제협력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의 유학생 선발 기준인 토픽 급수의 수준에 대해 “교육부에서도 권고를 한 사항이고 법무부에서 가이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다”는 공식 답변과 함께 “다만, 우리 대학은 유학생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교육부 연례 평가인 우수 대학 인증이 있어 유학생 선발에서 일부분의 자율성을 갖고 있다”며 토픽이 토플처럼 매달 있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 토픽 3급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자 교내에서 따로 우리 대학 주최 시험인 CU 토픽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오면 서로가 좋은데 외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하려는 타 대학이 많기도 하고 적합한 인원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는 말과 함께 “조금 적응하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유학생들도 많다 보니까 학우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적응을 도와야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다”는 고충을 전했다.



▲국제관 전경



▲국제처 대학원 신입생 오리

학과에서 먼저 다가가야 할 대학 국제화
언어의 차이로 오는 어려움과 더불어 학교에 다니며 불편한 점을 묻자 ㄱ 학우는 “입학하고 학교 캠퍼스 사이트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걸 알려주는 게 없었다. 있었을 수도 있지만 있는지 조차를 몰랐던 것 같다”고 답했다. ㄱ 학우는 지금까지 단체톡에 초대되지 못해 학과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ㄴ 학우도 같은 문제를 언급하며 “고학년이 됐는데도 단톡방에 못 들어가고 있다. 학생회장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답장이 없다”며 주변에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 외국인 학우들이 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수업을 들을 때 한국 학우들이 외국인과 같은 팀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을 때가 있다며 그럴 땐 마음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유학생들은 언어적 차이와 대학에서의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강조했다.

우리 대학 유학생 학우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인 학과 적응에 대해 국제협력팀의 입장은 “단톡방에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학과실의 단톡방을 얘기하는 것 같다. 국제협력처가 외국인 입시를 담당하고 있지만 학과장이나 교수들이 외국인을 수용하는 문화가 부족해 선호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언어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런 태도는 외국인들이 실제 입학을 했을 때 학과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답했다. 국제협력팀 측에서는 “그래도 부서에서 외국인을 관리할 의무가 있기에 학과와 별개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꾸려서 한국인 재학생들과 신입생들을 매칭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주로 학사 지도, 학생증을 발급, 은행 통장 개설 등 아주 기초적인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돕고 있음과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 학생회를 통해 주요 사항들을 전달하게 하거나 고충 사항의 메신저 역할도 하고 있음을 알렸다. 나아가 “우리 대학에서 실제로 지원은 많이 하고 있다. 외국인 학우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범위도 넓고 생활 지원 장학금 제공과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며 유학생 지원에 노

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유학생 관리 인력난에 해결방안 필요해 보여

국제협력팀은 유학생 고충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해당 관계자는 “국제협력팀은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학과의 일을 하나하나 다 관여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학과에서 국내외 학생 구분 없이 소속감을 갖고 성공적으로 유학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학과가 좀 적극적으로 나올까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학생이 느끼는 고립 문제에 대해 어떤 외국인 학우가 학과에 소속되고 싶지 않겠냐고 반문하며 “학우들이 함께하고 친해지는 엠티 같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유학생들 대부분이 학과에서 공지를 못 받으니까 참여를 못 한다”며 “이런 학과의 문제는 국제협력팀이 해결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협력팀은 우리 대학 학부생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며 가장 필요로 하는 경우는 처음 한국에 오는 학우들을 위한 한국어 연수 과정이다. 그 학우들을 잘 관리해서 우리 대학에 보내는 것이 주요 역할이고 외국인 학우들이 입학해서는 학과나 단대에서 국내외 상관없이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나아가 이런 상황임에도 최대한 학습 지원과 적응 지원,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국제협력팀이 부담한 업무와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인력을 갖췄는지를 묻는 말에는 “국제협력팀 인력은 외국인 학생 관리가 대학원 한 명, 학부 한 명, 한국어 연수 한 명이다. 한 명이 모집부터 입학 관리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제협력팀에서 500명에 달하는 유학생을 관리하는 학생 선생님들이 3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3명은 국내 학생들의 해외 파견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은 유학생 유치와 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나아가 학교 전반에 외국인을 수용하는 문화가 자리매김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를 끝으로 우리 대학의 많은 유학생을 대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ㄱ 학우는 “우리가 한국어를 매우 잘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만 배려해주면 과제나 할 일은 열심히 할 수 있다. 엠티같은 행사도 참여하고 싶고 함께 잘 지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저 잘 지내고 싶다는 유학생의 작은 바람,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다.

김성우·김성하 기자

seongwoo55921@chosun.kr

seongha1bb@naver.com



찾았다! 내 힐링 포인트!!

곧 여름방학을 맞이할 우리는 저마다의 계획과 기대를 품고 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약 2달간의 방학기간 동안 아주 잠시나마 고생한 나를 위해 토닥임을 줘보는 것은 어떨까. '힐링'을 주제로 조대 신문 기자들과 이야기 나눴다.



▲산책길에서 만난 아기 토끼



▲행복 속에서 행운을 찾다.

목적 없는 목적지로

나는 걷는 것을 좋아해 산책을 자주 하는 편이다. 집 앞에는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어 조금만 나가도 천이 흐르고, 작은 동산도 있어 산책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천을 따라 한 방향으로 쭉 걷다가 징검다리를 반환점 삼아 건너 다시 돌아오면 1시간 정도가 지나간다.

나는 생각이 많을 때, 무기력할 때면 산책을 하러 나간다. 그냥 한적한 산책길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걷다 보면 복잡하던 머릿속이 정리된다. 목적지 없이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오른발을 내밀고 다시 왼발을 내미는 이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풍경과 선선한 바람이 나를 맞이해준다.

산책을 하는 중간에 네잎클로버를 찾기도 하고, 작은 동산에서 귀여운 토끼를 발견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산책을 하면 강아지, 고양이, 꽃, 나비 등을 의도치 않게 보게 된다.

나에게 산책은 힐링이다. 힐링하고 싶을 때면 밖으로 나와 산책하는 것은 어떨까.

박보경 기자 ppboo@naver.com

힐링이 되는 존재

가끔 너무 힘들고 지칠 때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다. 또, 어떤 날은 나만의 방식으로 힐링하기도 한다.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고 힘든 일을 다 잊어버리고 싶을 때 아기들을 보며 힐링한다.

아기들을 보고 있으면 나의 유년 시절이 떠올라서 잠시나마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기에, 놀이동산에 가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를 듣곤 한다. 놀이동산을 가면 환하게 웃고 있는 아기들의 천사 같은 미소를 볼 수 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되고 아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을 보며 소소한 행복함을 느낀다. 아기들의 천진난만한 행동들을 보고 있으면 귀여움에 폭 빠지게 돼 다시 헤어 나오기가 힘들다.

사람들마다 힐링하는 방법은 가지각색이겠지만 귀여운 아기들을 보는 것이 나에게겐 최고의 힐링이다.

김슬기 수습기자
dvjhgy@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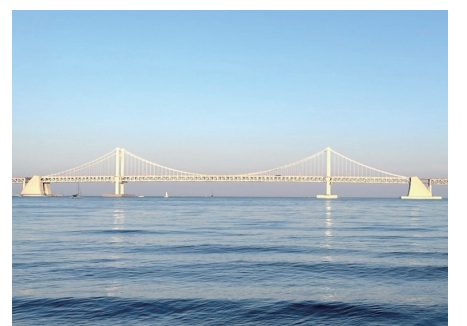
▲아이들의 동심 속 회전목마

거대한 자연 앞에서 힐링을 찾다

나에게 힐링을 주는 존재는 무엇일까? 나는 자연, 그중에서도 '바다'라고 생각한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칠 때쯤, 속세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을 때 찾는 곳은 바다가 있는 여행지다.

파랑과 평화로운 바다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진다. 철썹철썹 부딪히는 파도 소리는 잠생각을 사라지게 한다. 머리카락을 날리고 얼굴에 닿는 바닷바람과 짭짤하지만 시원한 바다 내음도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 또한, 거대한 바다를 보고 있으면 이 앞에서 있는 내가 아주 작은 존재처럼 느껴지고 내 고민이 순간 별거 아닌게 된다. 그래서 나는 바다가 나에게 진정한 힐링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한다. 이 사진은 <조대신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나의 힐링을 전달하기 위해 찍은 부산 광안리의 모습이다. 지금 당장 바다로 떠나지는 못하지만, 바다 사진을 통해 잠시나마 힐링을 찾길 바란다.

정민주 기자
miinjoo01@naver.com



▲부산 광안대교

여행, 나를 바라보고 위안을 얻는 시간

바쁜 일상 속에서 자아가 없어졌다고 느낄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너무 큰 책임들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다. 내 몸은 분명 하나인데 '부모님의 자식', '누군가의 친구', '대학생', '학보사 기자', '알바생' 등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아 살아간다. 하나의 몸이 주변의 환경에 따라 저마다 다른 페르소나를 바꿔가며 사람들 틈에서 아

등바등 살아가는 것이다.

매일 무감각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든다. 비로소 여행이 필요한 순간이다. 내게 여행은 힐링이다. 타지에서 나는 누군가의 자식도, 친구도, 학생의 본분도, 학보사 기자도, 알바생도 아니다. 그냥 타지인일 뿐이다. 그 순간 나는 온전하고 유일한 '나'가 됨을 느낀다.

여행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직책도 내게 집중하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다. 타지는 낯설지만, 그 낯선 감정 속에서 진짜 내 기분과 감정,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낯선 환경은 내 신경을 곤두세우고 사소한 것들에 집중하게 만들어 익숙한 환경에서 놓쳤던 것들을 다시금 보게 한다. 나는 여행 속에서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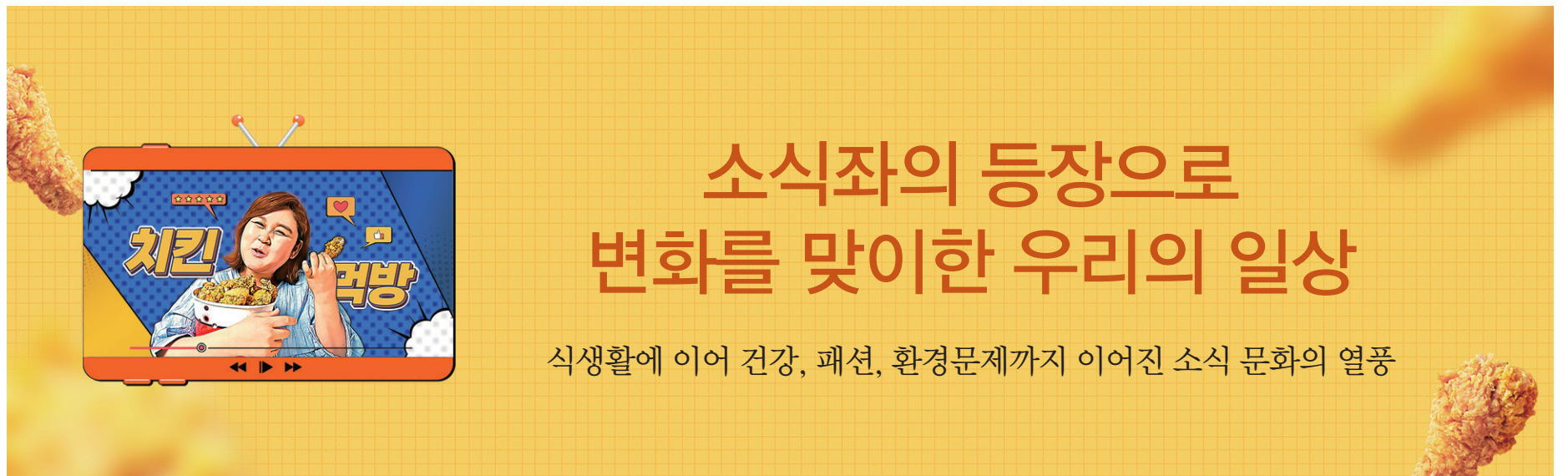
박영진 기자 youngjinqueen123@gmail.com



▲여행에서 음식은 빠질 수 없는 별미다.



▲비행기에서 보는 육지의 모습이다.



식생활에 이어 건강, 패션, 환경문제까지 이어진 소식 문화의 열풍



▲ 김숙티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에서 연예계 대표 소식좌 박소현과 산다라박의 소식 습관이 확인돼 인기를 끌었다.



▲ 소식좌가 인기를 끌자 소식 먹방, 소식 하는 법 등 다양한 콘텐츠가 업로드 됐다.



▲ 소식좌 열풍으로 초정탄산수는 용량을 대폭 줄인 190mL 제품이 탄생했으며, 다른 용량의 동일 제품과 비교했을 때 매출 규모가 2~4배 더 커졌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적게 먹는 식습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로 인해 음식을 적게 먹는다는 뜻의 '소식'과 특정 분야의 최고 자리라는 뜻의 '본좌'가 더해진 '소식좌'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과거 양을 많이, 맵고 짜고 달게 자극적인 음식을 먹던 먹방 채널이 인기를 끌었던 반면, 현재는 소식 먹방과 식욕 감퇴를 불러일으키는 먹방이 유행이다. 사람들은 왜 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됐으며, 소식이 유행되면서 변화된 우리 사회 속 움직임은 무엇이 있을까.

소식좌의 등장

작년 10월 11일 김숙티비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굿바이 비디오스타, 마지막으로 비스 식구들과 먹방 모음 대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해당 영상 속에서는 MBC every1 예능인 <비디오스타>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연예인 김숙이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박소현, 박나래, 산다라박과 함께 대기실에서 모여 음식을 먹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들 중 프로 소식가로 유명한 박소현과 산다라박이 음식을 먹는 양을 보고 "다 먹었어?"라며 당황한 반응을 보이는 김숙과 박나래의 모습이 담겨 재미를 안겨줬다. 이를 시작으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코드쿤스트와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에 나온 주우재의 소식하는 모습이 연달아 화제를 모으며 소식좌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난 것이다. 처음에는 소식을 하는 연예인의 식습관이 담긴 영상을 보며 적게 먹는 게 신기해서 인기를 끌었다. 재미의 요소로 작용해 각종 SNS 및 커뮤니티에 퍼져나갔던 소식좌의 영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는 소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이자 용기를 안겨주기 시작했다.

소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간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에 진심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음식을 적게 먹는 소식가들은 그간 잔소리의 대상이었고 자신의 식습관을 드러낼 수 있는 입지가 좁았다. "딱딱 좀 먹어라.", "입맛이 없냐." 등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식가들은 늘 꾸중을 듣는 답답을 도맡아왔었다. 이런 사회에서 소식좌의 등장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음식을 적게 먹는 사람들을 부정적인 시각이 아닌 이해 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식을 하던 사람들은 소식좌의 인기로 인해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된 것에 힘입어 소식 먹방, 소식 일상 등의 콘텐츠를 제작해 자신의 식습관을 알리거나 소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던 사람들이 공감과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각종 커뮤니티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소식 열풍으로 변화된 것은

소식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먼저 이뤄졌다. 사람들은 소식을 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소식을 추구하는 사람들마저 생겨나기 시작했다. 소식이 인기를 끌자 사람들은 소식,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식이 장애를 가졌음에도 사람들의 인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불균형한 식습관을 택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해나가기 시작했다. 우리 대학 법사회대학에 재학 중인 1 학우는 "과민대장증후군을 달고 살아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항상 배가 아팠었는데도 밥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늘 과하게 먹었던 것 같다"며 "소식이 인기를 끌면서 자신에게 맞

게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는 위로를 받은 느낌이다"고 말을 전했다.

이와는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프로아나(깡마른 몸매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거식증을 동경하고 걸리고 싶어 하기까지 하는 형태)가 유행이다. 소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는 소식을 지향하며 마른 몸을 만들기 위해 원한다. 이는 패션에도 영향을 주는데, 깡마른 몸매 어울리는 패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그중 하나이다. 그간 패션계에서 마른 몸을 추구하는 모습은 늘 존재했던 문제 중 하나다. 모델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큰 키에 마른 몸을 유지하는 것이 익숙한 모습이다. 소식이 인기를 끌며 평소에 소식을 하던 사람들이 위로와 공감을 얻는 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이지만,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적은 음식을 섭취하고 프로아나를 지향하는 건 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소식을 한다고 해서 건강에 좋다고 볼 순 없다. 각자에게 맞는 식습관은 각기 다르다. 그렇기에 무조건 소식이 옳은 것은 아니다. 자기 몸에 맞는 밸런스 있는 식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소식 열풍이 일면서 우리 사회에 변화된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간 유행했던 대식가, 즉 고열량의 자극적인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먹방 콘텐츠가 아닌 천천히 오래 음식을 음미하며 먹는 소식 먹방이 인기를 끌고 있다.

소식의 여파는 상품에도 영향을 미쳤다. 적은 용량으로 충분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각종 제품이 등장하고 있

다. 탄산수의 경우에 300mL 정도의 용량을 190mL로 줄였지만, 반대로 매출은 2배에서 4배까지 더 많이 팔리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용량을 대폭 줄인 닭가슴살, 오리 고기를 비롯해 아이스크림 케이크, 미니 피자 등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늘었다. 많은 양의 음식을 구입하다 보면 다 먹지 못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소식을 하게 되면 적은 양의 음식을 구입하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될 일이 줄어든다. 용량을 줄인 식품이 인기몰이 중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1인 가구가 많은 현 사회에서 양이 많은 음식은 다소 부담스럽다. 그렇기에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용량이 적은 식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음식을 적게 먹는 모습이 신기해 인기를 끌었던 소식좌는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밥에 진심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편견에 가려져 있던 소식가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안겨주기도, 소식으로 인해 마른 몸을 가진 사람들을 동경하는 이들이 생기기도 했다. 또한, 소식 먹방이라는 새로운 콘텐츠가 등장하고 용량이 줄어든 상품이 인기를 얻는 사회가 됐다. 식생활에 이어 건강, 패션, 환경문제까지 이어진 소식좌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서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우리는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무작정 소식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맞는 식습관을 기르고 타인의 식습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아 기자

jivory9956@naver.com

교수칼럼

부속병원 신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해마다 전국적으로 대학부속병원의 수익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대학 부속병원들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도보다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대학 부속병원도 당기순이익이 2020년 71억에서 2021년 164억으로 대폭 늘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하게 성과를 낸 우리 대학 부속병원의 의료진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 대학 부속병원은 병원신축에 따른 중장기 발전전략을 세우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신축이 대체로 수익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해본다.

첫째, 병원신축은 지방대학의 사활이 걸려있는 특성화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대학의 특성화의 하나로서 바이오헬스 분야를 생각해볼 수 있다. 병원신

축을 계기로 이 분야에 맞추어 대학의 틀을 새롭게 짤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되는 다양한 학과들이 헤쳐 모여 바이오 헬스 시대를 주도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특성과 모형을 수립해보는 것이다. 마침 광주시에서도 이곳 동구를 '디지털 정밀 의료산업 지구'로 조성하겠다고 하니 우리 대학이 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둘째, 병원신축을 계기로 대학의 공립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번 병원신축 계획안에는 일반병상 외에도 100병상 규모의 감염병 전담병원 신축을 예정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2017년에 질병관리본부에 의해 호남지역 감염병 전문병원에 선정되었다. 광주시에서도 상무지구에 350병상, 1천500억 원 규모의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서울에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이 곧 착공될 예정이어서 광주시에도 공공의료원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차제에 우리 대학에서 광주시에 우리 부지를 무상 또는 저렴한 가

격에 제공하여 공공의료원을 유치하고 우리 대학의 부속병원과 결합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부속병원부터 시립으로 전환하고 점진적으로 학교 전체를 공립화하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다.

셋째, 병원신축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가 교내외 사정상 적정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계획안에 따르면 부속병원의 신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속병원의 당기순이익을 2배 이상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23년에 253억 원, 2024년 305억 원, 2025년 322억 원, 2026년 완공 후에는 2027년에 411억 원, 2028년 519억 원, 2029년 61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예상해놓고 있다. 그러나 복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수도권에 대형 대학병원들이 앞다투어 분원을 설립하고 있어 수도권으로 적지 않은 환자유출이 예상된다. 또한 작년부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은행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무엇

보다도 우리 대학 전체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져 있다.

병원신축은 침체에 빠진 우리 대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일으킬 만한 사업이다. 하지만 구성원 간에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면서 좀처럼 활력의 바람이 불지 않고 있다. 이제 이사장과 총장이 직접 나서서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김재형 교수
(법사회대학 법학과)

서석대

묵묵히 그 자리를 유지하는 이유

대학에 입학하면 학보사 기자 활동을 하고 싶다는 나의 다짐으로 시작된 조대신문 활동이었다. 그렇게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신문을 발행해온 지도 벌써 2년 하고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수습기자로 시작한 지난 학보사 활동이 정기자를 거쳐 교육부장까지 마치고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 코로나19라는 범유행으로 인해 대학 생활 중 가장 처음 시작했던 게 조대신문이었다.

사실 학보사라는 곳이 내가 생각하던 이상적인 곳만은 아니었다. 학생 기자 신분으로 취재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존재했을뿐더러 기사를 작성하면서 스스로 만족을 느끼지 못해 몇 번이고 좌절했으니 말이다.

내가 학보사 활동을 한 지난 2년 하고 반이 조금 안되는 시간 동안에도 학보사에는 항상 재정 위기가 찾아왔다. 이걸 비단 내가 활동하고 있던 시기뿐만이 아닐 것이다. 학보사는 늘 재정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작년에는 신문발행 횟수가 1년에 총 12회에서 9회로 줄어 들었다. 존재 위기에 놓인 학보사라는 위치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검색 몇 번으로 손쉽게 정보를 얻는 세상에서, 심지어는 원하지 않는 정보에까



정상아 기자
jivory9956@naver.com

지 노출돼있는 정보 과다 상황에서 종이신문이 자신의 존재감을 내비치기엔 역부족이다.

수습기자로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아니 아마 훨씬 그 이전부터 '학보사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시작으로 학보사 존재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이는 비단 독자들의 의문만이 아니다.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마저도 이러한 의문을 품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조대신문 기자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지난 1140호 서석대에서도 말했듯이 '누군가는 알려야 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 기자들이 발견한 조대신문 존재 이유다.

기 위해 조대신문 기자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지난 1140호 서석대에서도 말했듯이 '누군가는 알려야 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 기자들이 발견한 조대신문 존재 이유다.

고된 학보사 일로 회의를 느낄 때면 늘 마음속에 내가 작성한 기사가 학우들에게,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곤 했다. 아직도 글의 힘을 믿는 나로서는 학보사 기자라는 자리만으로 막대한 책임감을 느꼈으니 말이다.

사소할지 모르는 그 책임감과 주인의식으로 자리를 지키는 조대신문 기자들이다. 학보사의 임지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알려야 하고 기록해야 한다면 조대신문은 계속될 것이다.

서석대

어른아이

나는 어려서부터 빨리 어른이 되길 꿈꾸곤 했다. 딱히 근사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정해진 규칙대로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되는, 많은 제약이 사라지는 자유로운 생활을 상상하며 자라왔다. 나에게 '어른'이란 낭만적이고 다정한 단어였다. 그렇게 열아홉의 마지막 날 20살이 되는 것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나는 초중고를 지나 드디어 어른이 됐다는 것에 마냥 좋아했다. 하지만 '20살'을 1년 겪고 난 뒤인 지금, 어른에 대한 생각이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내가 늘 생각해보던 어른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스물이 돼도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고, 용돈을 받는 등 나는 어른은커녕 아직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아이였다. 물론 아직 취업하지 않은 대학생이지만, 나 스스로도 '어른'이라는 넓은 세상 안에서 허우적거릴 준비가 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다 저번 조대신문 1142호 중 '대학생들의 대출에 대한 인식'에 관한 기획 기사를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학우들이 대출에



박보경 기자
ppboo@naver.com

관심이 없다는 점, 교수님께서 대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직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뼈를 맞은 느낌이었다. 사실 나도 그런 학우들과 마찬가지로 입장이었다. 나는 아직 독립을 할 준비도, 애초에 할 생각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실 대출의 경우에는 살면서 꼭 해야 하는 관문 중 하나다. 돈을 모으고 언젠가는 대출을 통해 내집마련을 하게 될 날이 올 테니 말

이다. 이런 대출을 잘 모르는 것은,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지 않았던 것은 내가 아직 어른이 되길 부정해 오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20살을 알리는 종소리를 기점으로 한해 한해가 지나면서 그만큼 책임져야 하는 게 한두가지씩 늘어나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자신도 모르게 어른이 된다. 나는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어른도 아이도 아닌 사람들을 '어른아이'로 부르고 싶다.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 서툴러도 괜찮다. 어른 아이도 어른이 되기 위한 한 과정일 뿐이니까.

사설

6·25 전쟁 7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과제는?

지난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00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 약 4,000여 명 이상의 민간인 희생자를 포함한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전쟁은 국제 정세와 경제를 큰 혼란에 몰아넣고 있으며 전쟁의 폭력과 비참한 참상 그리고 여파를 전 세계가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 비록 타국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72년 전에 벌어졌던 민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올해 2022년은 6·25 전쟁 발발 제72주년이 되는 해이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경 북한은 압호명 ‘폭풍’이라는 치밀한 사전 계획에 의해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하였다. 통계상 약 99만 명의 인명피해와 천만 명에 가까운 이산가족을 포함한 전재민이 발생하였

으며 사회, 경제적 생산 기반이 대부분 파괴되는 등 심각한 물적 손실까지 입게 되었다. 정전 후에도 248km에 달하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은 대립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북한은 약 3,000회 이상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왔다. 이러한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의 대립은 양국은 물론 주변국들의 군비경쟁으로까지 심화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하나의 동일 민족으로 역사와 문화, 언어를 공유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언젠간 반드시 통일을 이뤄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6·25 전쟁 72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미래의 통일을 위하여 무엇을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

게 충돌하며 대립과 갈등의 구도로 안보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굳건한 군사적 안보태세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해 나가면서도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전략적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0년대 통일을 이룬 독일의 통일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서독이 경제적 측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통일을 주도하였던 점을 교훈 삼아, 우리도 북한에 비교 우월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여 통일의 기반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군사적 측면에서는 국가, 국민, 군대가 삼위일체가 되어 그 어떠한 위협과 위기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비 태세와 신뢰성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남북한은 한민족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와 신

뢰를 구축하고 미래 통일의 방향으로 함께 전진해야 할 것이다.

“Si vis pacem, para bellum!” 고대 로마의 군사 전략가 베제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명언을 남겼다. 이러한 명언과 유비무환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국방력은 전쟁을 억제하면서, 궁극적으로 평화를 위한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국방력의 강화와 더불어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과 단결력을 고취하여 이 땅에서 벌어졌던 전쟁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72년간의 단절로 인한 남과 북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한민족 공동체 정신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나가기 위한 우리의 염원, 평화적 통일이 이뤄지기를 기원한다.

데스크에서

20대라는 글자에 실린 무게

“보호받지 못하면 어른이 되지 못한다.” tvN 방송사의 ‘어쩌다 어른’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진행한 김창욱 교수는 사회에 나와 하고 싶은 것을 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 삶의 목적이 뚜렷하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누군가로부터 억압을 받았던 사람들은 해야 할 일에만 충실함을 말한다.

어른의 사전적 의미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성인의 의미는 ‘자라서 어른이 된 사람. 보통 만 19세 이상의 남녀’를 뜻한다. 많은 사람들이 20대를 어른이라고 칭하지 않음과 동시에, 사전적 의미로서 해석하면 많은 3·40대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자기 일에 책임을 지고 살아왔지만 부모의 도움 없이 살아온 적이 있나 모두 생각해보자.

#20대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20대는 왜 ‘어른’이라고 불리는지에 의문

을 뒀다. 위에서 말했듯 3·40대만 봐도 독립하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다반사인데, 20대가 그런다고 ‘어른’이라고 불러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갓 사회에 나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며 무언가를 시작하는 단계니 서투름이 보일 수는 있다. 아직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했을 뿐더러 그들로부터 강요를 받기 때문이다. 먼저 사회생활을 겪은 부모님들 눈에는 20대가 결함이 많아 보이지만, 그저 ‘경험’이 그들과 대비해 부족한 것 뿐 아닌가. 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수행해야 하는 교과과정을 이수했으며, 원하는 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그들을 스스로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나이 대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고등학생까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이유는 독립시키기 위해서가 주된 이유가 아니던가. 그들이 사회에서 살아남고 적응하도

록 하는 것이 의무임에도 당신들은 청년들의 인생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식, 체격, 사회적 지위만 성인, 어른이지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스스로 돈을 벌 권리가 있으며 스스로 사회생활 할 권리가 있다. 또한 누구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맞다. 어느 정도 너그러움을 가지자.

#스스로 어려워지 말자

과거를 회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고, 다른 나이대와 다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청춘이기에 스스로 많은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주변에서 말한다. ‘20대는 아직 어리니 괜찮다’고. 그렇게 그 말을 듣고 20대 중반·후반이 되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고작 한두 살 더 먹었을 뿐인데, 모든 것이 준비돼 있어야 하는 시기가 될

수는 없진 않는가. 그렇다고 한탄하고, 원망하기엔 이른 타이밍이다. 나를 알아갈 시간이다.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성향인지,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고 설계하고 있는 지,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내 인생은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누군가에게 거액을 쥐도 내 인생은 내 인생일 뿐이다. 직접 일귀 나가야만 한다. 여태까지는 어렸고, 누군가의 어린 자식이었고, 학생이었기에 그들이 하는 대로 걸맞은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속박당하면 내 인생에 나는 없는 것이다. 자신을 괴롭게 만들던 모든 것들을 정리해보자.

‘지금 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김성우 편집국장

seongwoo55921@chosun.kr



20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2022.05.24.(화) 9시 ~ 2022.06.23.(목)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 2022.05.24.(화) 9시 ~ 2022.06.27.(월) 18시
- 신청 대상 : 재학생, 신입·편입·재입학생, 복학생
 -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 이하
 - ※아래 성적 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파악한 학생
 - 지난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B학점 이상(100점 만점 80점 이상)/기초차상위계층인 학생은 C학점 이상/신·편입생, 장애 학생은 성적 기준 적용되지 않음.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앱 내 “원클릭 신청” 메뉴를 활용하여 모바일 신청 가능
(모바일 앱 바로가기 : <https://mo.kosaf.go.kr/apps>)

합성이 있는 공연 '제한됐던 자유'를 되찾다



▲입장 전 줄서는 사람들



▲JAEHA 'LIFE LIKE CONCERT'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동안 일상에서 쉽게 즐길 수 있었던 공연, 전시, 축제 등이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이 조정되면서 합성이 허용되는 공연들이 열리고 있다.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공연장을 직접 방문했다.

코로나19 전에도 공연을 다녀서 합성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분위기를 이미 느껴봤던 나는 코로나

19 시기 동안 진행된 공연에서 합성을 지를 수 없어서 힘들고 아쉬웠다. 코로나19가 시작된 후로 합성이 허용된 공연은 처음 가는 거라 사람들의 폐창을 들을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다.

나쁜 아니라 공연을 보러 온 모든 사람이 설레하는 게 느껴졌다. 공연 시작 3시간 전부터 많은 사람이 모였고 슬로건, 티켓 홀더 등을 제작해 나눠주는 팬들도 있었다. 공연이 시작되자 팬들의 폐창

이 시작됐다. 폐창을 들은 아티스트의 표정은 행복해 보였고 폐창을 하는 팬들도 지금까지 규제로 인해 쌓아뒀던 한을 다 푸는 느낌이었다. 나도 코로나19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 나서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를 막는 방해꾼은 없었으면 좋겠다.

김아리 수습기자
ariya1120@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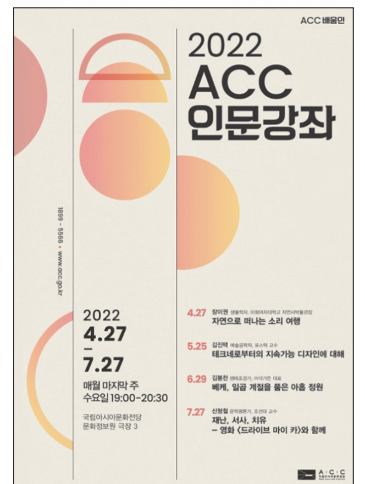
7월, 찾아오는 신형철 교수의 인문강좌

지난 달 25일, 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에서 김진택 예술 공학자의 인문 강좌가 있었다. 해당 강좌는 '테크네로부터의 지속가능 디자인에 대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됐다.

이 강좌는 ACC 2022 인문강좌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 진행된다. 인문강좌는 2주 전부터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며, 해당 일 19시부터 20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앞으로는 6월 29일 생태조경가 김봉찬의 강좌와 7월 27일 문학평론가이자 우리 대학 신형철 교수(문예창작학)의 강좌가 남았다.

우리 대학 신형철 교수의 강좌는 '재난, 서사, 치유 -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와 함께'라는 주제로 강좌가 진행된다. 강의를 듣는데 어려움이 없기 위해서는 각자 영화를 보고 와야 한다.

우리 대학 재난인문학사업단의 일반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신형철 교수는 본인이 조대신문 1139호에서 다룬 재난인문학 사설 글과 함께 이 강좌에서도 해당 내용을 다룬다고 한다.



▲ ACC 인문강좌 포스터

끝으로 신형철 문학 평론가는 "영화<드라이브 마이 카>를 통해 어려운 시절을 버텨낼 수 있는 소통의 힘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건 없고, 근래 가장 좋은 영화 한 편을 놓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강좌를 보러 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남겼다.

백어진 수습기자
uhjin0304@naver.com

영화 <1987>

6월의 뜨거운 눈물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많은 분의 희생 덕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6월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난 달이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열사의 사망 등으로 인해 커진 6월 민주항쟁은 군부 독재정권을 쫓아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탄생시켰다.

영화 <1987>은 지난 2017년에 개봉한 영화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활동,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며, 오늘날 우리가 꼭 봐야 할 영화다. 부끄럽지만 이 영화를 보

기 전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했다.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됐으며 또한 나는 과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다. 나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할 수 없었다. 남겨진 가족들, 나의 꿈, 나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부터 들었다.

그만큼 많은 분의 용기와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 영화를 보고 6월 민주항쟁의 의미를 깨닫고, 현재를 만들어준 역사를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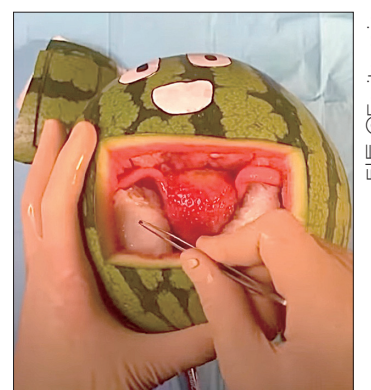
김세진 수습기자
zlw0726@hanmail.net

외과지식을 전파하는 선한 영향력

최근 프랑스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의대생이 채소나 과일을 실제 환자처럼 치료하는 영상을 SNS에 올려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무려 600만 명이나 시청했고, 최근에는 학회에서까지 교육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은 프랑스 그르노블 대학 6학년에 재학 중인 로빈 공세(25)이며, 그가 과일 수술 영상을 SNS에 올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20년이다.

코로나19로 도시가 봉쇄되며 외출이 전면 제한되자 현장 실습 기회를 놓쳐버린 그는 집에 있는 과일을 사용해 봉합 수술 연습을 시작하게 됐다. 오렌지, 수박, 가지 등의 과일과 채소에 그려 넣은 눈과 입은 환자들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그대로 나타낸다. 과일들은 저마다 다른 이름과 병력을 가졌고, 로빈은 이들을 통해 실제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곁들이며 가능한 현실적으로 재현해냈다.

재미로 시작한 수술 영상은 의료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르노블 대학 교수는 그



▲로빈의 과일수술 영상 중 일부

의 영상을 산부인과 학회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외신들은 "환자들이 이 영상을 통해 수술 내용을 이해하게 돼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 인체가 아니니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는 콘텐츠라는 창의적인 발상으로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는 수술 안내 콘텐츠를 만든 로빈의 선한 영향력에 박수가 끊이지 않는다.

정하늘 수습기자
jeongsy1109@naver.com



제보 및 문의 : chnews21@hanmail.net

☎ 230-6162